



광주 서구의회, 어린이 의회견학 운영

광주 서구의회는 6일 우정유치원 어린이 5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의회견학을 실시했다. (사진)

의회견학은 먼저 1층 소회의실에서 서구의회의 역사와 기초 의회의 역할에 대해 학습한 후, 2층으로 이동해 본회의장 및 주요시설 견학으로 진행됐다.

어린이들은 의사봉을 직접 사용해 의장의 역할을 체험하고 폴뿌리 민주주의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승일 의장은 "이번 의회 견학을 통해 아이들이 기초의회의 중요성을 학습하고 폴뿌리 민주주의가 자리잡는데에 소중한 기회가 됐길 바란다"며 "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기 위해 더욱 지역사회와 구민들과 소통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회는 매년 4월, 8월 중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의회견학을 추진하고 있다. 정상기 기자



LH 재능모아봉사단, 지식·재능 나눔 봉사

LH광주전남지역본부 'LH 재능모아봉사단'이 6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행복꿈터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능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

재능모아 봉사단은 임대주택 입주민이 LH 작은도서관을 통해 먼저 배운 지식과 재능을 기반으로 품앗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체로 지난달 출범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찾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행복꿈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림과 공예(마크라메 키링, 스톤공예, 스칸디아모스 공예 등)가 접목된 다양한 미술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4회 시행할 예정이다.

정수미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재능모아봉사단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찾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6일 광주 서구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조정과 관련해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아이유, 서울월드컵경기장선 뽀뽀...피케팅 예고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이지은)가 월드투어를 끝내자마자 이 투어의 앙코르 준비에 돌입한다.

6일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는 이날 0시 소셜 미디어에 '2024 IU HEREH 월드투어 앙코르 - 더 워닝'의 티저 포스터(사진)를 게재했다.

아이유는 예고한 대로 오는 9월 21~22일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지난 3월 서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을 출발해 지난 2일 로스앤젤레스(LA)까지 18개 도시 관객과 만난 투어의 진정한 피날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국내에서 올림픽주경기장과 비견할 만한 상징적인 공간이다. 4만명에서 6만명가량 수용이 가능하다. 올림픽주경기장이 리노베이션에 들어가면서 당분간 국내 스타디움 아티스트급들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게 됐다.

그간 국내 불박이 '문화 대통령' 서태지를 비롯 빅뱅, 지드래곤, 싸이, 세븐틴, 임영웅이 이곳에서 공연했다. 아이유는 솔로 여성 가수로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단독 공연한다. 아이유는 2017년 6월 지드래곤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연 솔로 콘서트에 게스트로 서 이곳 무대에 올랐다.

특히 아이유는 지난 2022년 9월 17~18일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국내 여성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 '더 골든 아워(The Golden Hour) : 오렌지 태양아



래'를 연 데 이어 여성 가수로서 역사를 계속 써내려가게 됐다. 당시 양일간 9만 관객을 모았다. 올림픽주경기장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모두 공연한 가수는 서태지·싸이 등 극소수다.

아울러 아이유가 이번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보여줄 연출도 관심이 있다. 올림픽주경기장 공연 당시엔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과 대형 열기구 등 화려한 스케일로 큰 화제가 됐다.

이번 아이유 앙코르 콘서트도 치열한 티케팅이 예고된다. 올림픽주경기장 예매 때에도 수십만명이 몰렸다.

이번 티켓 예매는 오는 12일 오후 8시 팬클럽부터 가능하다. 일반 예매는 14일 오후 8시에 진행한다. 이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공식 예매처인 멜론 티켓과 소속사 채널을 통해 순차 공개된다. 뉴시스



광산경찰, 유관기관 합동 성범죄 예방 활동

광주 광산경찰은 지난 5일 광주교통공사, 기동순찰대와 합동으로 광산구 신촌동 소재 공항역 등 관내 5개 지하철 역사에서 하계기간 성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사진)

이번 활동은 휴가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고, 코로나 이후 비접촉형 성범죄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지하철 역사 내 공중화장실 등 취약 장소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광산경찰은 지난해 5월 탐지 역량 강화를 위해 복합형 불법카메라 탐지 장비 2대를 구입, 신규 장비를 활용해 5개 역사 등 47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한 합동점검을 마쳤다.

또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광주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물과 불법카메라 간이 탐지 카드를 배부했다. 김상철 기자



시청 열린공간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

광주시민들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재탄생한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사진)

광주시는 6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층 시민홀에서 지역 청소년들로 구성된 '광주 나눔소리 오케스트라'가 작은 음악회를 열어 시청을 찾은 시민과 직원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작은 음악회는 캐논 변주곡을 시작으로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브람스의 헝가리안 댄스 5번 등 다채로운 클래식 연주를 선보였다. 또 시민들에게 친숙한 팝음악과 가곡, 가요 등을 들려주고, 아리랑, 도라지타령 등 클래식과 국악이 접목된 다양한 곡들을 연주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직원은 "지역 학생들의 공연 봉사활동의 의미가 살아있고, 연주실력도 수준급이어서 좋았다"며 "열린공간으로 재탄생한 광주시청사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료

사회적경제 분야 우수 청년 인력을 발굴·육성하는 '2024년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환자와 돌봄 가족을 위한 치유농가 스테이를 기획한 박수진(43·화순)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이날 경진대회에는 전남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아카데미 수료생을 비롯해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바라는 예비창업가 등 19팀이 참가했다.

심사 결과 박수진 씨가 대상을, 최우수상은 폐기물을 활용한 새사용 해양관광기념품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한 장우석씨(24·여수), 전남 농특산품을 활용해 건강한 당노식 김밥과 도시락 제공 아이디어를 낸 황연정씨(44·여수)가 수상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경찰, 마약범죄수사계 '동부팀' 신설

전남경찰은 전남 동부지역 마약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 조직을 개편했다. (사진)

6일 전남경찰은 현 순천경찰서 부지 내 위치한 전남경찰청 별관에 마약범죄수사계 '동부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경찰은 김철우 수사부장, 안민택 형사기동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수사계 '동부팀' 개소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박정보 전남경찰청장은 "전남 전체 인구 및 치안수요의 약 48%가 동부권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동부팀' 출범이 도내 마약범죄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펜싱 오상욱·구본길 금의환향...'동상이몽' 뜬다

파리올림픽 펜싱 국가대표팀이 '동상이몽'에 뜬다. (사진)

오는 12일 오후 10시10분 방송하는 SBS TV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는 '2024 파리올림픽' 펜싱 국가대표팀 구본길·오상욱·박상원·도경동이 출연한다. 이들은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따 3연패에 성공했다.

구본길은 5월 부인인 승무원 박은주씨와 이혼을 공개했다. 당시 올림픽을 앞두고 만행으로써 책임감을 드러냈다. "파리 올림픽 준비가 가장 힘들었다. '당연히 구본길은 올림픽 나갈 거야'라는 부담감도 있었고 규정 변화로 불안함의 연속이었다"며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생각에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구본길은 메달을 따고 금의환향한 소감을 밝힌다. 오상욱과 주장 구본길의 케미도 기대를 모은다. 올림픽에서 조커로 활약한 도경동과 막내 박상원은 예능감을 뽐낼 예정이다. 뉴시스